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4(土)	15(日)
 흐리고 한두차례 비 23 / 29℃	 차차 흐려짐 22 / 28℃

News

- 보복폭행 김승연 신드롬? ③
- 넓치 물 없어도 하루 산다 ④
- 박세리 첫날 선두 ⑩

Jeollado

- 그 사람-정해숙 前위원장 ⑦



Entertainment

- 가요계 '男風' 분다 ⑧
- 한국영화 속편 전성시대 ⑨

Wellbeing

- 식품 탐구-우렁이 ⑬



유형직업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buniv.ac.kr
 남부대학교는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
 http://www.jstuniv.ac.kr

선정위원들 '신정아 문제' 알고도 묵인

최소 3명 사전 인지...최종 후보 오른 뒤에도 덮어
 비엔날레 선정위원 9명중 8명 "신씨 추천 안했다"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위의 일부 위원들이 신정아(35)씨의 학위 진위논란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선정위원들은 최종 후보를 압축해가는 과정에서 신씨가 공동 예술감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데도 사실상 이를 묵인,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13일 선정위원 11명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최소 3명의 위원들이 신씨와 관련된 의혹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중 누구도 신씨에 대한 의혹들을 문제삼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선정위원 11명 가운데 전화 통화가 이뤄진 9명중 8명은 "신씨를 후보로 추천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선정위원장인 이종상 전 서울대 박물관장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신씨의 학위진위 논란'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위원들은 지난 5월22일 제2차 선정위원회 당시 국내 감독 후보 9명의 명단에서 신씨의 이름을 확인했으나, 최종 후보로 추천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 인신공격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이들 위원들이 당시에 신씨에 대한 의혹들을 제단에 알려 검증을 요구했다면 이번 '가짜 예술감독' 사태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 A씨는 "주변인들로부터 신씨에 관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당시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낮아 언급하

지 않았다. 감독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B씨는 "신씨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지만 비방이라 생각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C씨는 "소문만 듣고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를 거론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이사들은 1, 2차 선정위에서 국내감독 선발이 무산된 후 3차 선정위가 재단 이사장에 선발을 일임해버린 8명의 후보들 가운데 5명이 고사하거나 배제됨에 따라 6월 27일 신씨가 최종 후보 3인에 오른 뒤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실상 신씨의 선임은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8명의 후보 중 ▲김미진씨는 예술의 전당 예술감독을 맡은 직후여서 비엔날레 총감독을 고사했으며 ▲김선정 한국 예술종합학교 교수는 휴직이 필요하며 감독직을 사양했다. ▲이주현 CJ엠스빌 아트갤러리 명예관장은 추천자가 추천을 철회한 상태였고 ▲장석원 전남대 교수와 ▲윤진섭 호남대 교수는 1차 선정소위에서 이미 배제된 상황이었어서 최종 후보리스트에 오른 인물은 ▲이영철 계원조형예술대 교수 ▲박만우 전 부산비엔날레 감독 ▲신정아씨 등 3명 뿐이었다.

한갑수 광주비엔날레 이사장은 "이씨와 박씨의 경우 임용 부적절 사유가 있어 신씨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위원(11인)과 후보추천 내용

성명	직 위	답변내용
강연균	비엔날레 이사-서양화가	"후보로 추천한 인물은 없다"
김태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신씨가 아닌 국내감독 현명을 추천했다"
김운수	비엔날레 이사-국립현대미술관장	" "
김종희	2006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 "
남상규	비엔날레 이사-부국문화재단 이사장	연락 안됨
박지택	비엔날레 이사-광주시립미술관장	"후보로 추천한 인물은 없다"
유재길	홍익대 미대 교수	연락 안됨
이용우	비엔날레 이사-2004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국외감독 현명을 추천했다"
이종상	비엔날레 이사-선정위원장-전 서울대 박물관장	"밝힐 수 없다"
홍리영	비엔날레 이사-삼성리조트 총괄부관장	"신씨 아닌 다른 사람 추천했다"
황영성	비엔날레 이사-서양화가	"후보로 추천한 인물은 없다"



미국산 쇠고기 시판 '분노 항의'

한미FTA 저지 광주·전남운동본부 회원들이 13일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항의, 롯데마트 상무점내 쇠고기 판매대에 쇠뿔을 뿌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나명주기자 mjna@

이명박 처남 김재정씨 소환

檢, 부동산 차명보유 의혹 조사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관련기사 2면〉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서울 도곡동 땅 등 각종 부동산의 처명 소유 여부와 김씨가 대주주로 있는 유다스의 자회사인 흥은프레닝의 천호동 주상복합건물 특례 분양 의혹 등

에 대한 진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김씨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검찰청사에 출두하면서 "수십년간 일해 일궈낸 내 재산인데 정치인들이 남의 것이라고 하니 해명하려 왔다"며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자료를 변호사가 모두 갖고 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아직까지 사과의 뜻을 밝힌 곳이 없어 고소 취소는 안한다"고 말해 이 후보 측의 강력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뜻을 굽힐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한 조사 외에도 포

"北-美 군사회담 열자"

北, 유엔 대표도 참가 제의

북한 판문점대표부 대표는 13일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유엔이 참가하는 가운데 북·미 군사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대표는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생방이 합의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아무 때나 유엔대표도 같이 참가하는 조·미 군부 사이의 회담을 진행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스코개발 관계자 등 김씨가 부동산을 사고 팔았던 매도·매수인 등의 신원과 소재도 확보해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고 김씨의 세금납부 상황, 폐쇄 등기부 등본 등도 확인하는 등 김씨가 부동산의 실소유주인지 캐고 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흥은프레닝의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관련 공무원과 시공사 관계자 등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남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신공덕 동사무소에 이 후보 측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의뢰한 법무사 사무소 직원 체모씨를 불러 누구의 부탁을 받고 초본을 발급받았는지 조사했으며 초본 발급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체씨 아버지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